

- Egli, Emil. *Schweizerische Reformations-Geschichte*. I. Band 1519–1525. Zurich : Druck und Verlag von Zurcher & Furrer, 1910.
- Gäbler, Ulrich. *Huldrych Zwingli : Einen Einführung in sein Leben und sein Werk*. München : Verlag C. H. Beck, 1983.
- Haas, Martin. *Huldreich Zwingli*. Zürich : Zwingli Verlag, 1969.

동양서적

이형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번역서적

Courvoisier, Jaques. *Zwingli Théologien Réformé*. 이수영 역. 「개혁신학자 츠빙글리」.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Haas, Martin. *Huldreich Zwingli*. 정미현 역. 「홀드리히 츠빙글리」. 서울 :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 1999.

Hans Ulrich Jäger-Werth. *Wiederbelebung Reformierter Spiritualität*. 정미현 역. 「깨어나는 종교개혁의 영성」.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Gaebler, Ulrich. *Huldrych Zwingli*. 박종숙 역. 「츠빙글리 그의 생애와 사역」. 서울 : 아가페출판사, 1993.

Oehninger, Robert, H. *Zwingliportal am Grossmunster in Zurich*. 정미현 역.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이야기」.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 고양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Stephens, W. P. *Zwingli :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경수 역.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7.

10 존 칼빈의 경건에 대한 소고

이영식 /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Ph. D.

1. 시작하는 말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기독교 역사가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역사 속에서의 칼빈의 위치’라는 제하에서 “그는 기독교교리를 개혁주의적 체계로 조직화하여 해설한 사람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교부들 가운데는 어거스틴에게 뒤지지 않고 학자들 가운데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못지않으며, 조직적이고 균형 잡힌 면에서는 두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었다.”¹⁾라고 평가한다. 루터파 신학자들 중 제1인자 ‘독일의 교사’였던 멜란히톤은 그를 단호하게 ‘진정한 신학자’라고 칭했다. 칼빈의 신학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주석가였으며 그의 주석서들은 고대와 근대를 통틀어 최고의 수준이었다.²⁾ 그는 주석을 포함하여 엄청난 양의 ‘기독교 지

1) 필립 샤프(Philip Schaff), 박경수 역, 「교회사 전집-8, 스위스 종교개혁」(고양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p. 248.

성이 번득이는 저작물'을 집필했던 저술가였던 것이다.³⁾

존 칼빈은 또한 목회자였다. 자신의 약한 육체도 흑사병의 위협도 그의 목양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제네바를 부흥시킨 사역자였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그리고 성찬에서의 성령의 임재와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성을 정립하였고, 그 제네바 개혁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유럽 전역과 영미에 영적 부흥의 불을 지피는 원동력이 되었다.⁵⁾

그런데 이상에서 열거한 신학과 목회 및 사역의 근저에는 그의 '경건의 신학'과 '경건의 삶'이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이냐 '영성'이냐를 차지하고라도, 더 본질적인 것은 경건은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금만 그에게 집중해 보면, 경건은 그의 신학, 그의 사역과 목회, 그의 저술, 그의 삶 전체에서 녹아져서 거대한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그의 '경건'은 그의 신학과 삶의 기저이며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의 사상과 실천과 인격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신앙과 체험에서 나온 일관성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경건이었고, 거룩한 열정이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의 깨어 있는 관계, 즉 거룩한 경건이 숨 쉬고 있었다.⁶⁾ 칼빈의 경건신학의 내용적인 초점은 하나님 중심적(God-centered)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신성의 특성과 본성들을 강조한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고 존중한다. 반면에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

2) 위의 책.

3)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서울 :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pp. 428-429.

4) 위의 책, p. 378.

5) 박용규, "종교개혁자로서의 존 칼빈의 생애," 오정호 편집, 「칼빈과 한국교회」(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9), p. 16.

6)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p. 521. 김재성 교수는 여기서 글의 제목을 '위대한 경건'이라고 잡고 있다.

로 부패한 피조물이다.⁷⁾ 그래서 그의 신학과 삶에 경건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감정과 주님으로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결합하여……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⁸⁾라고 외친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도 영성 혹은 경건에 관하여 관심이 많다. 이미 개신교 학자들 가운데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의 신학을 다룸에 있어서도 경건(pietas, piety)과 영성(spiritualitas, spirituality)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인가 '영성'인가? 어떤 용어가 칼빈에게 적절한가? 그 용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칼빈이 영향을 받은 경건이나 영성은 어떤 것인가? 칼빈의 신학과 사상에서의 경건은 무엇이고, 그 경건이 그의 사역과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문제에 관련하여 이 시대 우리는 칼빈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소고의 목적은 칼빈의 경건의 의미와 신학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연관개념 및 경건을 위한 방편들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경건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그의 사역과 목회, 그리고 그의 실천적인 경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신학과 신앙과 사역과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와 방법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칼빈의 신학이 아니라 그의 경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경건의 배경으로서 칼빈의 청년기에 그의 지식과 경건에 영향을 끼쳤을 교육적인 배경과 그의 갑작스런 회심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당시에 신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과 칼빈파의 관련성

7)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서울 : 도서출판이레서원, 2001), p. 158.

8) John Calvin, *Catechism*(1537), ed., and trans. Ford Lewis Battles(Pittsburgh :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1972), 2. Ford Lewis Battles, "칼빈이 보는 참된 경건," 「칼빈신학의 이해」, p. 251에서 재인용.

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칼빈의 경건으로 들어가서, 칼빈이 생각한 경건의 중요성과 ‘경건’과 ‘영성’에 대한 용어문제 등을 살펴보고, 칼빈의 신학에서의 영성, 그의 사역 및 목회에서 나타난 경건, 그의 삶과 죽음에서의 경건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칼빈의 경건 사상의 배경

1) 칼빈 경건의 청년기 및 교육적 배경

존 칼빈(John Calvin)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피카르디(Picardy) 주의 누와용(Noyon)에서 태어났다. 루터와 츠빙글리보다 25년이나 뒤진다. 그의 고향은 교회당, 수도원, 신부, 수도사가 많아서 성자들의 누아용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⁹⁾ 그곳은 대성당이 있는 오래된 도시였고, 그곳의 주교는 그 도시의 지배자인 동시에 프랑스 12귀족 중 하나였다. 칼빈이 태어난 해부터 1525년까지 인근 지방 귀족출신인 샤를 앙제(Charles de Hangest)에 의해 다스려졌다.¹⁰⁾ 유년시절부터 몴모르(Mommor) 집안의 사람들과 같은 그 지역의 귀족 가문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교제할 만큼 세련된 귀족적 태도와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¹¹⁾

그의 아버지는 칼빈에 대한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교단과 참사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12살 칼빈으로 하여금 누아용 성당에 속한 라 제지느(La Gesine) 제단에서 성직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529년 사임하였으나 1531년에 다시 맡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칼빈이 신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주교 밑에서 관리로서 일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처지에 비추어 본다면 놀라운 것은 아니다.¹²⁾

9) Phillip Schaff(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8-스위스 종교개혁」, p. 260.

10) Francois Wendel(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p. 16.

11) 위의 책, pp. 16-17; W. J. 부스마, 이양호·박종숙 공역, 「칼빈」(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3), p. 30.

12) 프랑수아 방델,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17;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칼빈은 14살 되던 1523년에 파리로 갔다. 8월에 마르슈 대학(the College de la Marche)에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현대교육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인 유명한 마튀랭 코르디에(Marthurin Cordier, 1479-1564)에게서 문법과 수사학을 배웠다. 라틴어로 생각하는 법과 쓰는 법을 배웠고,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을 그에게 헌정하였다(1550).¹³⁾ 코르디에는 학생들의 영적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스도를 무척 사랑하는 교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를 매우 존경했다. 코르디에는 말년에 제네바에서 칼빈과 합류했다. 그는 칼빈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이었다.¹⁴⁾

1524년에 칼빈은 ‘정통신앙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몽테규 대학(College de Montaigne)에 입학하게 되었다. 15세기 말에 공동생활 형제단의 정신과 방법을 소개했던 스탠동크(Standonck)의 정신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안토니오 코로넬(Antonio Coronel)이라는 스페인 교수에게서 철학을 배웠다.¹⁵⁾ 몽테규 대학은 숙박 및 위생 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교육은 탄탄하고 도덕적이고, 신학은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수사학, 논리학, 문화와 언어 및 자연에 관한 지식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아울러 칼빈은 과외로 당시의 금서인 멜란히톤의 글과 루터의 글을 접했다.¹⁶⁾

칼빈은 인문학, 철학, 신학에 있어 당시 프랑스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는 오를레앙, 부르쥬, 파리의 주요 대학들에서 1528년에서 1533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공부하였다. 1532년에 들어갔던 오르레앙 대학(College de Orleans)의 레스투알(Pierre de l' Estoile)이 있는데, 그는 당대 최고의 프랑스 법학자로 인정을 받았다.¹⁷⁾ 그는 칼빈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는데, 그는 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매우 신앙적이며,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칼빈은 그의

8-스위스 종교개혁」, p. 261.

13)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8-스위스 종교개혁」, p. 263.

14) 헤르만 셀더르하우스, 조승희 역, 「칼빈 : A Philgrim's Life」(서울 : 대성닷컴(주), 2009), p. 23.

15) 프랑수아 방델,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p. 19.

16) 헤르만 셀더르하우스, 「칼빈 : A Philgrim's Life」, pp. 24-25.

17) 프랑수아 방델,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p. 23.

지성을 흡모하였다. 그리고 그를 “불변하는 왕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¹⁸⁾ 또한 사람은 칼빈이 1529년에 입학하였던 부르쥬 대학(College de Bourges)의 이탈리아의 로마 법학자 알치아피(Andreas Alciati)였다.¹⁹⁾ 그는 밀라노 출신의 진보적인 사람으로서 볼로냐와 파도바에서 계속해서 학문적 경력을 쌓아나갔다. 칼빈은 이 두 라이벌들의 논쟁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피에르 레스푸알의 편을 들기도 하였다.²⁰⁾

칼빈은 법학공부에 전념하면서도 또한 다른 학문들을 섭렵하게 되었는데, 인문주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²¹⁾ 칼빈에게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쳐 준 스승은 독일 출신의 인문주의자 로트바일 멜키오르 볼마르(Melchior Wolmar)였다. 볼마르는 루터파 종교개혁에 공개적으로 동조하였다. 나중에 칼빈은 그의 고린도후서 주석을 그에게 헌정하였다(1546년 8월 1일).²²⁾ 칼빈은 1531년과 1532년 사이의 겨울 동안에 자신의 최초의 서적을 완성하느라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the Commentary on the De Clementia of Seneca*)이다.²³⁾ 그는 이 책을 1532년 자비로 출판하여 에라스무스에게 보냈다. 이러한 인문주의적 배경은 칼빈의 신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칼빈은 그의 청년시절을 당대의 우수한 학교와 스승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훗날 개혁신학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경건의 신학자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2) 칼빈 경건의 분수령, 갑작스런 회심(Subita Conversio)

칼빈의 회심은 그의 경건 사상에서의 가장 큰 분수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회심에 대한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서 화제가 되어 왔다. 그의 회심

에 대한 회상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시편주석」(1557)의 서문에 한 구절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걸 더 좋아하는……”²⁴⁾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편주석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의 신비로운 인도로써 드디어 나의 인생행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이다. 처음에 나는 너무도 고질적으로 교황주의의 미신에 열성적이어서 그 진흙의 깊은 수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회심으로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셨고 온순한 성격이 되게 하셨다.²⁵⁾

칼빈의 회심사건에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된다. 첫째는 회심의 성격이다. 과연 칼빈의 회심은 어떤 것인가? 그가 체험한 회심은 순간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향이 조금씩 변화된 과정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일어난 결정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칼빈의 회심을 디모데와 흡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²⁶⁾ 그래서 ‘수비타’(Subita)를 만약 ‘갑작스러운’(suddenly)으로 번역한다면, 바울이 경험한 회심과 나란히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회심을 실제로 ‘예기치 못한’(unexpected) 한 사건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그의 회심을 불신상태에서 믿음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교리를 더욱 순수하게 정화시킴으로써 교회를 변화시킨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²⁷⁾ 같은 맥락에서 보면, 칼빈은 불신자도 부도덕한 청년도 아니었다. 반대로 그는 흡잡을 데 없는 성품을 지닌 현신된 가톨릭 신자였다.²⁸⁾

따라서 그의 회심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의 변화이자, 로마 가톨릭의 미신으로부터 복음적 신앙으로의 변화, 스콜라주의적 전통주의로부터 성경적 단순

18) 위의 책, p. 24.

19) 위의 책.

20)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8-스위스 종교개혁」, p. 264.

21) 프랑수아 방멜, p. 24.

22)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8-스위스 종교개혁」, p. 264.

23) 프랑수아 방멜,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p. 29.

24) 헤르만 셀더르하우스, 장호광 역, 「중심에 계신 하나님 : 칼빈의 시편신학」(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2009), p. 33.

25)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7권 여호수아/시편」, 저자 서문, pp. 160-161.

26) 헤르만 셀더르하우스, 「칼빈 : A Philgrim's Life」, p. 31.

27) 위의 책.

28)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8-스위스 종교개혁」, p. 268.

성으로의 변화였다.

둘째로, 그 회심의 시기에 대한 논의이다. 프랑수아 방델은 칼빈의 회심기간을 1533년으로 보고 있다.²⁹⁾ 그러나 당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필립 샤프의 말대로 1532년 후반에 오를레앙이나 파리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³⁰⁾

회심 후 칼빈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성경의 사람으로의 변화였다. 칼빈은 이제 가르침을 받을 만한(Docilis-teachable) 존재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칼빈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³¹⁾ 회심 이후 칼빈은 오직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말씀의 신학자,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칼빈은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a text)로 이해하던 과거와 달리 유일한 텍스트(the Text)로 이해하기 시작했다.”³²⁾ 그리고 그의 회심은 은혜와 복음적인 자유 및 양심의 해방을 가져왔다.³³⁾ 칼빈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깊이 깨달은 한 인간으로서의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시편 130편을 노래한 기자의 마음을 안다고 파력하기도 하였다.³⁴⁾ 결국 칼빈의 회심은 그의 사명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경건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3)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과 칼빈

그의 청년기 훈련과정에서도 잠시 보았지만, 칼빈도 그 시대의 인물이며 아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칼빈의 경건은 그가 활동했던 16세기의 역사적, 신학적, 영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14~15세기의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은 15~16세기 동안에 번성했다. ‘공동생활 형제단’으로 알려진 이 운동은 네덜란드 데이펜터(Deventer)의 게르하르트

그로테(Gerhard Groote, 1340–1384)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데이펜터와 콤볼레(Zwolle)에서 시작되어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공동생활 형제단’은 오랜 침묵의 시간 동안 흘러져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적으로 금식, 철야, 묵독, 기도를 요구하며 수도승의 공동체처럼 엄격한 통제하에서 공동체생활을 했다. ‘근대적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으로의 회귀를 통하여 개인적 개혁을 시도했다.³⁵⁾ 특히 토마스 아 캠퍼스에게서 이러한 내적 헌신은 신비주의적으로 고양된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정점에 이르렀다.³⁶⁾ 요셉 리차드는 “토마스 아 캠퍼스(Thomas à Kempis, 1380–1471)는 근대적 경건주의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 중 하나이며 그의 논문인 「그리스도를 본받아」(*De Imitatione Christi*)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관한 가장 위대한 고전 중의 하나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³⁷⁾

스tan동크(John Standonck)는 근대적 경건의 원리에 기초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고다(Gouda)에서 ‘공동생활 형제단’의 공동체에서 복음적인 신비주의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형제단의 창시자인 그로테의 정신에 깊은 감화를 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1483년에 몽테규(Montaigu)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³⁸⁾ “1499년 스탠동크가 창설한 신비주의 도서관은 확실히 원네쉬 해임 학파의 자료들을 모두 소장하고 있었다.”³⁹⁾ 칼빈은 1523년에 몽테규 대학으로 갔다. 이 대학의 학풍은 게하르트 그로테(Gerhard Groote)와 그의 추종자들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 대학에서 칼빈은 스탠동크의 제자 노엘 베다(Noel Beda)를 통해서 근대적 경건의 저서들을 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경우는 작크 르페브르 에타풀(Jacques Lefevres d'Etaples, 1450–1536)과 그의 제자 볼마르(Melchior Wolmar)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리라 본다. 칼빈은 부르주 대학에서 헬라어를 볼마르에게 배웠다.⁴⁰⁾ 마지막으로 리에즈(Liege)의 공동생

29) 프랑수아 방델,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p. 37.

30) 필립 샤프, p. 269.

31) 박용규, “종교개혁자로서 존 칼빈의 생애,” 「칼빈과 한국교회」, p. 28.

32) 위의 책, p. 27.

33) 위의 책, p. 28.

34) 헤르만 셀더르하우스, 「칼빈 : A Philgrim's Life」, p. 33.

35) 위의 책.

36)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0), p. 30.

37) 요셉 리차드,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서울 : 기독교문화사, 1986), p. 41.

38)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p. 31.

39) 요셉 리차드, p. 72.

활 형제단에서 훈련을 받은 슈트(Johann Sturm)은 교육개혁을 통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그 정신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칼빈에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⁴¹⁾

그러나 칼빈이 토마스 아 캠피스로부터 비롯된 동시대 경건주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칼빈이 몽태규 대학교 시절에 토마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탐독했는지에 대하여 학자들은 결정적인 논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⁴²⁾ 자신에 대한 말을 삼가 노라고 스스로 공언한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가독지(Alexandre Ganoczy)가 말하였듯이, 이 경우에도 우리는 칼빈의 객관을 통하여 그의 주관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그의 작품을 통하여 그의 생애를 읽어야 할 것이다.⁴⁴⁾

이 근대적 경건운동에는 지식과 영성의 간격이 존재했는데, 칼빈에게 와서 비로소 그 간격이 채워지게 되었으며, 칼빈은 근대적 경건의 수도원적 영성에 관련된 순수한 주관주의를 피했다고 하는 평가도 있다.⁴⁵⁾ 오히려 칼빈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성경을 토대로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건의 기저로 놓고 있으며, 근대적 경건은 공동예배 의식과 은총의 방편인 성례전을 멀어지게 했던 반면에, 칼빈은 예배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례전을 중시했던 것이다.⁴⁶⁾ 그래서 칼빈과 개혁주의 경건은 객관적인 계시의 인지와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지성적인 추구와 동시에 감성적인 경험이 조화 내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⁷⁾

또한 칼빈의 관점은 세상으로부터 멀리하려 했던 근대적 경건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보인다.⁴⁸⁾ 칼빈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의 변화를 꿈꾸었다. 그래서 "칼빈의 영성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영성"⁴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의 경건이 근대적 경건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독특한 개혁주의적인 경건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3.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의 중요성과 그 의미

1)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의 중요성

존 칼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삶 전체는 어떤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고 피력하고 있다.⁵⁰⁾ 여기서 인간 자력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통한 성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의 신학적 사고와 삶 속에서 경건(pietas)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의 신학사상의 한 측면이라기보다는 그의 전체 신학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경건의 중요성은 그의 디모데전서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디모데전서 4:7~8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⁵²⁾

40) 정승훈, 31; 요셉 리차드, 「칼빈의 영성」, p. 102.

41) 정승훈, p. 33.

42) 문병호,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에 계시된 경건: 칼빈의 공관복음서 해석에 나타난 위격적 연합교리를 중심으로," 「칼빈과 영성」(부산: 개혁주의 학술원, 2010), p. 129.

43) Responsio ad Sadoleti Epistolam(1539), *Calvini Opera Selecta*, 1, 460 : "나는 나에 대한 말을 땀 놓고 하지 않는다(De me non libenter loquor)." 문병호,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에 계시된 경건: 칼빈의 공관복음서 해석에 나타난 위격적 연합교리를 중심으로," 「칼빈과 영성」, p. 129에서 재인용.

44)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ans. David Foxgl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7), p. 242. 문병호, p. 129에서 재인용.

45) 위의 책, p. 182.

46) 유해룡, "후기 중세시대의 신 경건운동," 「교회교육」, 1994. 2, p. 68.

47) 유해룡, "개혁주의 영성," 「교회교육」, 1994. 3, 62.

48) P. van Geest, *Thomas Kempis(1379/80-1471) : Een stuie van xijn mensen godsbeeld*(Kok : Kampen, 1996), pp. 149-155.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p. 203에서 재인용.

49) 요셉 리차드, p. 177.

5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I. 19. 2 ; 존 칼빈,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강요 중권」(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p. 388.

51)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 교회를 위한 신학」, p. 204.

52) 이수영, "칼빈의 경건," 「John Calvin, 그 후 500년」, 한국칼빈학회(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pp. 15-16에서 재인용.

그것은 마치 그가 “당신은 헛되이 다른 일로 지칠 이유가 없다. 만일 당신이 모든 열심과 능력을 다해 오직 경건에만 헌신한다면,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딤전 4:7 주석).⁵³⁾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곳엔 부족이란 없다. ……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경건에만 집중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딤전 4:8 주석).⁵⁴⁾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80개 장 중 어느 장도 경건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할애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기독교강요」의 어느 한 장이 아니라 그 책 전체를 경건에 할애했음을 발견하게 된다.⁵⁵⁾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처음 출판할 때부터 그 후에도 줄곧 일종의 서문처럼 그 앞머리에 붙여 함께 출판한 당시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에게 쓴 공개서한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나의 의도는 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를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ad veram pietatem)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⁵⁶⁾

칼빈은 ‘경건’에 관하여 이처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신학과 목회와 삶 가운데 ‘경건’에 대한 그의 주장과 그의 실천이 거대한 강처럼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53) 존 칼빈,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신약성경주석-9」(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0), p. 480.

54) 위의 책, pp. 481-482.

55) 이수영, p. 16.

5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현사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상권」, p. 41.

2) 경건의 의미

칼빈은 ‘근대적 경건’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개혁주의 경건을 이끌어 갔다. 칼빈은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한다.⁵⁷⁾ 칼빈은 그의 첫 요리문답(1537년에는 프랑스어, 1538년에는 라틴어로 출판)에서 이 번역하기 힘든 단어인 경건(pietas)을 정의하고 있다.⁵⁸⁾

참된 경건은 자기가 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달아나는 두려움에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여 하나님 거스르기를 죽기보다 무서워할 뿐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지한 감정이다.⁵⁹⁾

칼빈은 또한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이 경건을 보다 더 간략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깊으로써 오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⁶⁰⁾ 또한 그는 시편주석(119:78 이하)에서 pietas의 참된 본질은 신자들의 두 가지 표징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첫째는 경외, 즉 그분을 아버지로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둘째는 두려움, 즉 그분을 주님으로서 섬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⁶¹⁾ 또한 예레미야 주석(10:25)에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cognitio Dei)을 경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invocatio)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매요, 경건이 있다는 증거다.⁶²⁾

57) 이양호, 「칼빈의 영성」(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6), p. 220.

58) Ford Lewis Battles(포드 베틀즈), 도날드 매컴 편저, 이종태 역, “칼빈이 보는 참된 경건,” 「칼빈신학의 이해」(서울 : 생명의말씀사, 1991), p. 250.

59) John Calvin, *Catechism*(1537), ed., and trans. Ford Lewis Battles(Pittsburgh :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1972), 2. Ford Lewis Battles, “칼빈이 보는 참된 경건,” 「칼빈신학의 이해」, p. 251에서 재인용.

60) John Calvin, *Institutes* I. 2. 1;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상권」, p. 85.

61) 존 칼빈,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 「구약성경주석-11」(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0), p. 78.

62)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17」, pp. 79-85.

3)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 혹은 영성이라는 용어

칼빈의 ‘경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과 ‘영성’에 관한 ‘적실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칼빈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경건’(pietas, piety, godliness)이라는 용어와 함께 ‘영성’(spiritualitas, spirituality)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차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⁶³⁾

하워드 헛지만(Howard G. Hageman), 브라이언 게리쉬(Brian A. Gerrish) 그리고 찰스 홀(Charles, A. M. Hall) 등의 작품과⁶⁴⁾ 배틀스(Ford Lewis Battles)의 글에서도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⁶⁵⁾ 헤르만 셀더르하우스(Herman J. Selderhuis)는 「중심에 계신 하나님 : 칼빈의 시편신학」(*Theology of the Psalms*)의 제4장 맷는말에서 “칼빈의 영성”과 “칼빈주의 영성”이라는 타이틀로 그의 결론을 맺고 있다.⁶⁶⁾ 맥키(Elsie Anne McKee)는 그의 “Spirituality”라는 제목의 저술에서 ‘영성’과 ‘경건’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⁶⁷⁾ 알리스터 맥그레스(Alister E. McGrath)가 이미 10여 년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의 영적인 전통을 대변하던 현신(devotion), 경건(godliness, piety), 거룩함(holiness)과 같은 단어들은 중세 이래로 로마교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

적한 바 있다.⁶⁸⁾

그러나 문병호 교수는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영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영성 애호가’라고 지칭하면서, 다시금 ‘경건’이란 말을 회복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⁶⁹⁾ 그의 결론적 고찰에서 ‘경건’은 ‘영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영성’이라는 어의(語義)는 역사적으로 고대 철학으로부터 기원하는 습성(habitus)과 자질(qualitas)이라는 개념들과 관련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영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교통하는 영적 자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성 교수는 “칼빈의 모든 것을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영성’이라는 신학용어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더구나 칼빈이 단 한 번도 강조하거나 문서로 남기지 않았던 개념을 이제 와서 우리의 개념상 필요하기 때문에 ‘칼빈의 영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학 방법론의 중대한 오류라고 본다.”⁷⁰⁾라고 피력하고 있다.

사실상 칼빈과 관련하여 ‘영성’과 ‘경건’을 혼용하거나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리차드 캠블(Richard C. Gamble) 같은 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중세 수도원 영성개념과는 다르게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⁷¹⁾ 브라이언 게리쉬(B. A. Gerrish)도 “칼빈의 성만찬적인 경건”에서 “나는 경건이라는 말을 영성이라는 말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데, 경건(pietas)이라는 말이 칼빈 자신의 용어이기 때문이다.”⁷²⁾라고 밝힌다.

이렇게 볼 때, ‘경건’이라는 용어가 칼빈에게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볼 것이지만, 그의 신학과 사역과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63) 문병호, “칼빈의 경건신학,”『성경과 신학』44(2007), p. 9.

64) 위의 책, p. 11에서 재인용.

65) Ford Lewis Battles, “True Piety According to Calvin,” in *Interpreting John Calvin*(Grand Rapids : Baker, 1996), pp. 289–306. 문병호, “칼빈의 경건신학,”『성경과 신학』44(2007), p. 11에서 재인용.

66) Herman J. Selderhuis, *Calvin’s Theology of the Psalms*(Grand Rapids : Baker Academic, 2007) ; 헤르만 셀더르하우스, 장호광 역, 「중심에 계신 하나님 : 칼빈의 시편신학」(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9), pp. 396–401.

67) Elsie Anne McKee, “Spirituality,” in *The Calvin handbook*, ed., by Herman J. Selderhuis(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pp. 465–471. 맥키는 서론 첫마디에서, Spirituality, pietas, was central to Calvin’s theology, as the title of his major work show……라고 적고 있다.

68) Alister E. McGrath, *Spirituality in all Ages of Change : Rediscovering the Spirit of the Reformers*(Grand Rapids : Zondervan, 1941), p. 32.

69) 문병호, “칼빈의 경건신학,”『성경과 신학』44(2007), p. 12.

70)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p. 522.

71) 위의 책, pp. 522–523. 리차드 캠블은 칼빈이 가진 영성의 개념이란 “첫째로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지식이며, 둘째로 그 지식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규정한다.

72) B. A. Gerrish, “Calvin’s Eucharistic Piety,”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1995, 1997*(Grand Rapids : Calvin Studies Society, 1998), p. 53.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p. 524에서 재인용.

증보가 필요 없는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합일이나 황홀경을 연상시키는 영성개념을 거절한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는 개념인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옳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수도원 개념의 그런 '영성'이 아닌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영성의 의미라면 그 용어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4. 칼빈의 신학과 생애에서 나타난 경건

1) 칼빈의 신학에서의 경건

그렇다면 칼빈에 있어서 실제적인 경건의 신학 사상과 그 실천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그의 신학과 사상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제목들은 경건이 지향하는 방향성이기도 하고, 경건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경건의 삶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1) 하나님과 인간 자신에 관한 지식

칼빈에게 있어서 진정한 경건이란, 성경이 제시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에 토대를 둔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이 관점은 「기독교강요」 1559년판까지 시종일관 지속되고 있다.⁷³⁾ 그것은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⁷⁴⁾ 여기서 우리는 칼빈 자신이 지식에 대하여 언급한 몇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은 생명의 기초이며, 경건의 첫 입구이다. 영적인 은사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비추임을 받기까지는 구원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벧후 1:3 주석).⁷⁵⁾

73) John Calvin, *Institutes* 1. 1. 1-2.

74)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pp. 205-206.

게다가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⁷⁶⁾

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칼빈의 경건 이해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은 그가 「기독교강요」의 라틴어판에서 '경건'(ad pietatem)이라고 쓴 것을 프랑스어판에서는 '율법을 두려워하고 복종함과 복음을 아는 것'(en la crainte et discipline de sa Loy, et en la cognosissance de son Evangile)이라고 길게 풀어 쓴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⁷⁷⁾

또한 우리는 인간 자신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그 마음을 개조하실 때에만, 그 눈먼 상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깨우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 인식'(cognitio hominis)의 궁극적 지향점은 '하나님 인식'(cognitio Dei)이다.⁷⁸⁾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자각하게 된다.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다. 피조물 된 인간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coram Deo) 가능한 것이다.

(2)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때에 그 은혜의 감미로움과 즐거움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과 동시에 찬탄으로 가득하게 채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복종하게 한

75)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10」, pp. 478-479.

76) John Calvin, *Institutes* 1. 4. 1.

77) 이수영, "칼빈의 경건," 「John Calvin, 그 후 500년」, pp. 23-24.

78)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 칼빈의 시편신학」, p. 124.

다”(행 10:2 주석).⁷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의 열매와 증거라고 하고 있으며, 그 두려움은 경건과 떼어 낼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경건에 관한 칼빈의 언급 속에서 자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나타나며 심지어는 나란히 붙어 나오기까지 하는 말이 ‘경외’이다.⁸⁰⁾

(3) 순종

칼빈의 경건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가 자발적이어야 하듯이 복종 또한 “기쁨과 진정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⁸¹⁾ 또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에서 나온다.”⁸²⁾라고 말하고 있다.

(4) 예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예배는 경건생활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칼빈의 경건은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예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⁸³⁾ 예배는 경건생활의 꽃이며, 경건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라는 말은 칼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⁸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러므로 이 교훈의 요점은 진정한 경건, 즉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 될 것이다.”⁸⁵⁾ “우선 도덕에 관한 율법을

79)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5, 사도행전」, pp. 380-383.

80) 이수영, “칼빈의 경건,” 「John Calvin, 그 후 500년」, p. 19.

81)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5, 사도행전」, pp. 380-383.

82) John Calvin, *Institutes*, 1. 6. 2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상권」, p. 130.

83) L. J.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Atlanta : John Knox Press, 1974), pp. 100-102.

84) 이수영, p. 19.

85) John Calvin, *Institutes*, 1. 2. 2.

본다면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⁸⁶⁾ 즉,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이기도 하다.

(5) 성경과 성령

칼빈에게 경건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 즉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이다.”⁸⁷⁾ 성경은 칼빈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⁸⁸⁾

칼빈에 의하면, 이 경건의 교과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칼빈은 끊임없이 말씀과 영의 관계를 지적한다. …… 성령이 우리를 비추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씀 안에서 마치 거울 보듯이 보게 된다.”⁸⁹⁾ 그래서 칼빈은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경건으로 인도한다고 보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과 창이 되는 것이다.

(6) 기도

기도는 칼빈이 이해하는 경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또한 경건은 예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 자신이 말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기도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그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다. “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기도를 경건과 하나님 예배의 열매와 증거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다. …… 그것은 그(고넬료)가 외적인

86) *Institutes*, 4. 20. 15.

87) *Institutes*, 1. 6. 3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상권」, p. 128.

88) *Institute*, 3. 2. 6.

89)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 칼빈의 시편신학」, p. 176 ;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11, 시편 V」, p. 136 참조.

예식으로 그의 경건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가 기도로 자신을 연단할 때마다 그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의미한다.”⁹⁰⁾ 또한 그는 “경건은 인간을 향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뿐 아니라 신앙과 기도를 포함한다.”(딤전 4 : 8 주석)⁹¹⁾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

(7) 자기 부인(self-denial)과 십자가를 짊(bearing the Cross)

칼빈에게서 자기 부인은 부분적으로 이웃들을 위한 일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⁹²⁾ 또한 자기 부인은 내적이고 외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 첫째 내적인 면에서 보면, 자기 부인이란 삶의 주권을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자아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자아의 이기적인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말았는데, 자기 부인이란 피조물인 인간의 죄악 된 정욕을 죽이는 것과 그 욕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⁹³⁾ 이 칼빈의 자기 부인은 근대적 경건과 차별되는데, 근대적 경건은 자기 부인을 완전을 향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고, 칼빈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자기 부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⁹⁴⁾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은 일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⁹⁵⁾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경건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⁹⁶⁾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 : 24

90)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5, 사도행전」, pp. 380-383.

91)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9, 디모데전서」, pp. 481-482.

92) 존 칼빈,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 :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p. 86.

93) John Calvin, *Institutes*, 3. 7. 1-3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중권」, pp. 200-204.

94)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p. 218.

95) John Calvin, *Institutes*, 3. 7. 2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중권」, pp. 202-203.

96) 채영삼, “신약의 자기 부인의 영성과 칼빈의 이해,” 「칼빈과 영성」(부산 : 개혁주의학술원, 2010), p. 58.

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삶을 영위해 갈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종들을 훈련시키신다고 말하고 있다.⁹⁷⁾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됨으로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⁹⁸⁾ 이처럼 경건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작품 「스캔들에 관하여」(*Concerning Scandals*) 등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을 응용하여서 자신만의 독특한 십자가 신학을 고난 받는 교회와 연관해서 제시하고 있다.⁹⁹⁾ 루터와 칼빈의 십자가 신학은 영광의 신학(theologia gloriae)을 거부한다. 칼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the spiritual kingdom of Christ)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나라는 번영의 신학으로 익숙하여서 겪어야 할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교회와는 상관없다고 말한다.¹⁰⁰⁾

(8) 내세를 묵상하는 삶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 6~10장까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6~8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현세적 삶을, 9~10장은 내세에 대한 동경과 묵상을 진술하고 있다.¹⁰¹⁾ “칼빈에 있어 내세의 묵상과 현세의 삶이 균형을 이

97) 존 칼빈, 「칼빈의 경건 :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p. 98.

98) John Calvin, *Institutes*, 3. 8. 1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중권」, pp. 216-217.

99) Bonnie Pattison, “The Suffering Church in Calvin’s Theology : An Exercise in Luther’s Theologia Crucis,” in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alvin Research*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2010).

100) 존 칼빈(John Calvin), 「스캔들론」, 「칼뱅 작품 선집 VI」, 박건택 편역(서울 : 총신대학 교출판부, 2010), pp. 475-630 ; John Calvin, *Concerning Scandals*, trans. by John W. Fraser(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 숨어 계시는 하나님(God the hidden, *Deus absconditus*)과 십자가 신학에 관하여, 헤르만 셀더르하우스(Herman J. Selderhus), 「중심에 계신 하나님 : 칼빈의 시편 신학」, pp. 52-53, 250-267 참조.

룬다.”라고 하는 주장은 올바르다.¹⁰²⁾ 칼빈은 또한 10장에서 현세 생활과 그 보조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¹⁰³⁾

이상과 같이 칼빈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그의 경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은 그의 신학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경건에 대한 그의 주장들과 사상들이다. 살펴본 항목들은 기술한 바와 같이 경건의 개념이기도 하고, 경건의 목표이기도 하고, 경건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칼빈은 참된 경건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경건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 사역에서의 경건

(1) 칼빈의 ‘심장’을 드렸던 사역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한 것은 1536년 7월 말경이었다. 칼빈의 제네바 개혁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에 의해서였다. 1536년 6월 칼빈은 목적지 슈트라스부르크로 향했고, 제네바에서 하룻밤 정도 묵을 예정이었다.¹⁰⁴⁾ 그러나 그곳에서 파렐(Guillaume Farel)의 협박과도 같은 권유로 그는 그곳에 머무르며 사역을 하게 된다.¹⁰⁵⁾ 1538년 5월 26일 파렐과 칼빈에게 제네바 총회는 추방령을 추인했다. 칼빈은 제네바를 떠나서 결국에는 슈트라스부르크에 도착했고, 1538년 9월부터 1541년까지 3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는 어렵게 생활했지만 1539년 8월 1일 「기독교강요」 2판을 출간하고 10월 18일에는 「로마서 주석」을 간행했으며, 부처와의 교류를 통해 개혁사상의 폭을 넓혔고, 그곳으로 피난 온

101) John Calvin, *Institutes*, 3. 6. 1-3. 10. 6.

102) 윤종한, “칼빈의 영성신학 수립의 가능성과 목적에 대한 소고,” 「칼빈과 개혁신학」(광주 : 광신대학교출판부, 1999).

103) John Calvin, *Institutes*, 3. 10. 6.

104) 박용규, “종교개혁자로서의 존 칼빈의 생애,” 「칼빈과 한국교회」, p. 41.

105) 필립 샤프, 「교회사 전집-8, 스위스 종교개혁」, p. 294; 데오도르 베자, 「존 칼빈의 생애와 사상」, p. 40.

프랑스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였다.¹⁰⁶⁾

1540년 10월 22일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을 초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칼빈은 거절했다. 그러나 계속 거절했던 그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심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그의 순교의 결의였고, “경건의 대현장”¹⁰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충고를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내가 동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¹⁰⁸⁾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결한 신앙의 고백이며, 헌신의 표현이며, 장엄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3년간의 슈트라스부르크 망명을 청산하고 1541년 제네바로 돌아갔다. 과거 파렐과 칼빈을 추방했던 그들이 칼빈의 귀환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칼빈은 다시 제네바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재건과 부흥이었다.” 제네바에서 칼빈은 신학교수, 설교자, 목사, 교회 지도자, 학교 감독관으로, 저술가와 서신교환가, 그리고 종교개혁자로서 열심을 다해 섰다. 교황주의자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반삼위일체론자들과 교회 정치와 신학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해야 했다.¹⁰⁹⁾

그는 잠도 아주 적게 자고 적어도 10년간은 소화불량으로 하루에 한 끼 정도 밖에 먹지 못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 두통, 학질, 소화불량, 육체적 혀약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때로는 36시간 동안 일체의 음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2주일에 1주일은 매일 설교를 했고, 1주일에 세 번씩 신학강의를 했으며, 훈련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장로법원이 개정될 때마다 배석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성경공부를 주관하였고, 매일의 사역에서 해결해야 할 무수한 문제들과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심방하였다.¹¹⁰⁾ 심지어는 칼빈과 블랑쉐는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안타깝게도 블

106) 박용규, p. 46.

107) 김재성, 「칼빈과 종교개혁」, pp. 320-322.

108) Calvin's Selected Works, vol. 4, pp. 280-281. 김재성, 「칼빈과 종교개혁」, p. 322에서 재인용.

109) 필립 샤프, 「교회사 전집-8, 스위스 종교개혁」, p. 377.

랑쉐 목사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시의회는 칼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545년 6월 1일에 이러한 칼빈의 헌신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칼빈은 슈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환자를 심방 중에 여러 번 흑사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노출시켰다.¹¹¹⁾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는 “인문주의에 바탕을 두고 종교개혁의 신학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설립”¹¹²⁾ 되었으면서도, 그곳에서는 경건한 훈련이 잘 구현되었다. 그리고 아카데미가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¹¹³⁾ 아카데미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즉 스콜라 프리바타(Schola Privata)와 고등교육 과정인 학술원(the Academy), 즉 스콜라 푸블리카(Schola Publica)가 바로 그것이다.¹¹⁴⁾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네바에 몰려들었다. 아카데미가 문을 열자 60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첫해 등록한 학생수가 900명이었다. 전 유럽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합류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제네바를 모델로 삼고 개혁을 추진했다.¹¹⁵⁾ 그곳에는 존 낙스(John Knox)도 있었다. 존 낙스는 칼빈의 제네바야 말로 ‘사도시대 이후 이 땅에 존재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평가하였다.¹¹⁶⁾

(2) 십자가 신학과 고난 받는 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십자가의 삶과 세상에 흩어져 펍박당하는 피난민 교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칼빈의 신학과 그가 추구했던 교회개혁의 가장 중요한

110) 데오드르 베자, p. 65.

111) 김재성, 「칼빈과 종교개혁」, p. 378; 필립 샤프, p. 374.

112) 이은선, “제네바 아카데미와 개혁파 정통주의,”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서울: 성광문화사, 2000), p. 206.

113) 박경수,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 아카데미에 관한 연구,” 「칼빈연구」, 한국칼빈학회 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p. 166.

114) 위의 책, pp. 172-173.

115) James I. Packer, “John Calvin and Reformed Europe,”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 ed., John D. Woodbridge(Chicago: Moody Press, 1988), p. 54. 박용규, p. 64에서 재인용.

116) 필립 샤프, p. 251에서 재인용.

주제 중 하나이다.¹¹⁷⁾ 실제로 칼빈 자신이 도망자였고, 나그네였다.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과 그로 인해 제네바로 급속히 유입되는 프랑스 피난민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¹¹⁸⁾ 프랑스에 남아 있는 성도들 또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주석 30:6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는 날이 없다고 말한다”. 특별히 시편 주석에서 칼빈의 고난의 삶의 여정을 여실히 체감하게 된다. 시편 주석을 읽으면 칼빈이 다윗에게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음을 독자는 발견하게 된다.¹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의 심장’을 주께 드리면서, 개혁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갔다. 칼빈이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짚어지고 갔던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참된 경건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3) 칼빈의 일상의 삶과 죽음에서의 경건

(1) 칼빈의 일상의 삶

칼빈은 1차 제네바 목회를 하고 있을 때, 1537년 2월 13일 그에게 금화 6크라운을 주기로 결정하게 될 때까지 거의 혹은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¹²⁰⁾ 그 후에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1539년 5월부터 슈트라스부르크 시는 칼빈에게 겨우 52길더(약 200마르크)의 월급을 지불하였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할 수 없이 제네바에 두고 온 자신의 장서를 팔아야 했다. 그 즈음 파렐에게 편지했다. “제가 제네바에 남기고 온 책들을 팔면 다음 겨울까지는 제 집세를 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¹²¹⁾ 어려움 가운데서도 칼빈은 그곳 니콜라스 교회에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주일에 두 번 주중에 두 번 설교를 하고 성경공부반을 개설하여 운용했다.¹²²⁾

117) 김요셉, 오정호 편집, “칼빈과 칼빈주의 : 고난당하는 피난민의 신앙고백,” 「칼빈과 한국교회」(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p. 285.

118) 위의 책, p. 289.

119) 헤르만 셀더르하우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 칼빈의 시편신학」, p. 39.

120) 필립 샤프, p. 295.

121) 위의 책, p. 309에서 재인용.

칼빈은 또한 근면과 절제된 삶을 살았다. 낮에는 회의와 강의로 피곤하고, 그가 자문해 주어야만 하는 일들은 모두 박해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곤경에 처한 문제들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답장을 보내 주느라 희미한 등불 아래서 늦게까지 몸을 혹사하였다. 철저한 경건 생활에 힘쓴 사람, 이 한마디가 바로 남들이 이룩할 수 없는 놀라운 성경적 생애를 가꾸어 간 칼빈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¹²³⁾

칼빈은 1540년 8월 이들레트 드 뷔르(Idelette de Bure)와 결혼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둔 가난하고 몸이 허약한 여인이었으며, 조용히 아이들의 교육에만 힘을 쏟고 있었다.¹²⁴⁾ 칼빈은 그녀와의 사이에 적어도 셋 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나 모두 유아기에 죽고 말았다. 그가 1549년 4월 7일에 비레(Pierre Viret)에게 쓴 편지는 다음과 같다. “비록 제 아내의 죽음이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슬픔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 제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¹²⁵⁾ 여기서 아내를 잊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칼빈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부드럽고 애정 어린 가슴을 느끼게 한다. 칼빈의 이러한 성품은 자신의 외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을 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1542년). 그는 편지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서 어린 아들을 데려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¹²⁶⁾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린 아들을 하나 주셨다가 다시 데리고 가셨다. 하지만 전 기독교 세계에 내 자녀들이 무수히 많다.”¹²⁷⁾ 31세에 결혼해서 40세에 혼자가 된 칼빈은 죽을 때까지 15년을 독신으로 지냈다.

122) 박용규, p. 47.

123) 김재성, 「칼빈과 종교개혁」, p. 372.

124) 박용규, p. 51.

125) 필립 샤프, pp. 351–352에서 재인용.

126) 위의 책, p. 353.

127) 위의 책.

(2) 칼빈의 죽음

그는 1541년 9월부터 1564년 5월 27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23년간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 수많은 저술들, 훌륭한 제자들, 복음에 충실한 개혁교회, 수많은 복음적 설교자들을 배출한 아카데미를 남기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병약한 육체로 개혁운동을 지속했다.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 위안을 주는 구절을 암송하면서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천식으로 갈라졌으나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고 정신도 마지막 순간까지 맑고 강했다.¹²⁸⁾ 1564년 5월 27일 칼빈이 세상을 떠났다. 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칼빈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이렇게 기술했다. “이리하여 가장 빛나는 광채요 교회의 등불이었던 그는 지는 해와 함께 천국으로 갔다. 그날 밤과 그 다음날 도시 전체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탄으로 가득했다.”¹²⁹⁾

칼빈은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가 이미 자신의 장례식에서 일체의 허식을 행하지 말고 무덤에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금했던 대로, 그날 여덟 시경에 그의 시신은 거친 수의에 입혀져서 나무관 안에 눕혀졌다. 그는 어떤 예식이나, 조사나, 화려한 의식이나, 조가도 갖지 않은 채 빌랭빨라(Plein-alais)라는 공동묘지에 운구되었다.¹³⁰⁾ 5, 6개월 후에 제네바를 처음 와 보는 학생들 몇 명이 어느 날 칼빈의 묘에 가 보고서 당황했다. 그들은 거대한 기념물과 같은 무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거기에서 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무덤과 똑같은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¹³¹⁾

그는 그가 사역에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첫날 선포했던 원칙을 바꾸거나 더하

128) 박용규, p. 73.

129) 필립 샤프, p. 705에서 재인용; 데오도르 베자, p. 182 참조.

130) Oliver Abel, “왜 오늘날 칼뱅인가?—칼뱅의 윤리학과 ‘다른’ 근대성의 정신,” 한국칼빈학회 2011년 제1차 정례발표회, p. 23. 올리비에 아벨 교수는 칼빈의 시신을 거친 천으로 된 푸대에 싸서 장례를 치렀다고 말한다; 가노치(Alexandre Ganoczy)는 “칼빈은 그 자신의 바람에 따라 장례 예식 없이 한 장소에 묻혔으며 그 장소는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Alexandre Ganoczy, *Calvin's life*, trans., David L. Foxogrover and James Schmit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23. 이양호, p. 28에서 재인용.

131) 데오도르 베자, p. 183.

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텔함이 없이 말과 글을 통한 기독교 사역에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죄인들은 떨림이 없이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으며, 선한 사람들은 그가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³²⁾ 하나님과 교회와 그의 신학과 그의 삶에서 그의 거대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날카로운 지성을 보게 되고, 하늘을 향한 그의 장엄한 찬양을 듣게 되고, 경건의 향취를 맡게 된다. 그리고 눈물과 고통을 토로하는 따뜻한 칼빈을 발견하게 된다.

5. 맷는말

“나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cor meum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칼빈의 이 순결한 신앙고백이 500년이 흐른 지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심령을 파고들어 감동으로 전해져 온다. 이것은 순교의 결단이며, 헌신의 표현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는 경건의 대현장이다. 이 한 문장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과 그의 신학과 그의 경건사상과 그의 목회적 소명의식이 압축되어 있다.

냉철한 지성, 진리를 위해 타협이 없는 결단력, 종교개혁의 화신, 엄청난 양의 저술가, 고난당하는 자를 섬겼던 고난당한 목회자, 도망자를 돌보았던 도망자…… 그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함께 또한 맹목적인 비난과 모욕적 평가도 많다. 그러나 그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느껴진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아우성도 무기력해지고 오직 주님만이 보인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개혁의 불을 질렀다. 그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의 강함 뒤에 감추어진 그의 연약함과 눈물과 오히려 따스한 마음을 지닌 그의 실존을 만나게 된다.

그의 시편 주석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용장한 찬양을 듣게 된다. 그의 「기독교강요」를 읽어 내려가면,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영광의 갈채를 발견하

게 된다. 이제 나의 심장을 덮고 있는 그 두터운 놋판에도 균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더듬대지만 확신 있는 외침이 뿜어져 나온다. “나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존 칼빈의 경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의 신학과 목회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그의 교육과 훈련, 그의 만남, 그의 갑작스런 회심, 칼빈이 걸어온 행로를 보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뚜렷하게 확인하게 된다.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부여하신 날카로운 지성과 충실히 통하여 개혁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는 불 같은 종교개혁자였고, 다작의 저술가였고, 신학자였고, 제네바 부흥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칼빈을 이렇게만 보고 지나간다면, 그에 대한 중요한 많은 부분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단독으로 우뚝 선 경건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에 부여하신 소명을 이뤄드리는 데 그의 육체의 에너지와 그의 지성과 마지막 호흡 까지도 쏟아부었다. 아울러 칼빈의 생애는 한 인물이 얼마나 경건하게 그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한평생을 마칠 수 있는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의 유일한 생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개혁이었고, 경건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참된 경건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경건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 때만이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공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합일하고 황홀경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그래서 그의 삶에 실천됨으로 인해서 경건에 이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청된다. 따라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삶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칼빈의 경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및 평가해 볼

132) 위의 책, p. 184.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그의 청년기의 교육과 훈련이 그의 경건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의 사명에 필요한 사고(思考)의 풍성함으로 채움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칼빈의 갑작스런 회심 사건은 그의 사명의 분기점이었고, 경건의 분수령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당시 근대적 경건이 칼빈의 경건에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칼빈은 그것을 넘어갔음을 볼 수 있다. 넷째로 칼빈에게 경건은 그의 신학사상의 한 측면이라기보다는 그의 전체 신학이 지향하는 목적이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영성인가? 경건인가? 칼빈은 용어에 있어서 혼신보다는 경건을, 영성보다는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영성의 의미라면, 그 용어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여섯째로 특별히 그의 ‘사역에서의 경건’은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던 순결하고 순교를 각오한 경건이었고,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경건’은 그의 삶에서 실천되고 나타나는 경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칼빈의 경건은 신학과 사역과 삶을 통합하는 경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글을 맺으면서, 칼빈에게서 얻게 된 통찰을 통하여 몇 가지 앞으로의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 “Aagin ‘ad fontes’” or “Another ‘ad fontes’”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본다. 즉, 종교개혁자들이 “성경과 교부로 돌아가자.”(근원으로)고 했다면, 이 시대 우리 개혁주의는 다시금 “성경과 칼빈에게 돌아가자.”는 결단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나의 심장’을 즉시 드리고자 했던 칼빈의 신앙고백과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로, 이 시대 영적 리더들의 신학과 문서로서의 주장과 설교가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과 신학과 삶에 나타나는 통합적이고 진솔한 경건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로, 칼빈의 경건을 생각해 볼 때, 번영의 신학과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뜨거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더욱 선포되어야만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외국문헌

- Battles, Ford, Lewis, and Hugo, A. M. *Calvin's 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 Leiden : E. J. Brill, 1969.
- _____. “Sources of Calvin's Seneca Commentary.” in *John Calvin*, ed. G. E. Duffield, Grand Rapids : Eerdmans, 1966.
- _____. “True Piety According to Calvin.” in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 Baker, 1996.
- Calvin, John. *Catechism*(1537). ed.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ittsburgh :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1972.
- _____. “A Treatise 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in *John Calvin*, trans. Henry Cole, Jenison, MI :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1987.
- Calvin, John. *Concerning Scandals*. trans. by John W. Fraser.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 Ganoczy, Alexandre. *Calvin's life*. trans. David L. Foxogrover and James Schmit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The Young Calvin*, trans. David Foxo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7.
- Gerrish, B. A. “Calvin's Eucharistic Piety.”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1995, 1997. Grand Rapids : Calvin Studies Society, 1998.
- McGrath, Alister E. *Spirituality in all Age of Change : Rediscovering the Spirit of the Reformers*. Grand Rapids : Zondervan, 1994.
- Mckee, Elsie Anne “Spirituality.” in *The Cavin handbook*, ed. by Herman J. Selderhuis,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Packer, James I. “John Calvin and Reformed Europe.” in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 ed. John D. Woodbridge. Chicago : Moody Press,

1988.

Pattison, Bonnie. "The Suffering Church in Calvin's Theology : An Exercise in Luther's *Theologia Crucis*," in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alvin Research*.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Richard, L. J.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 John Knox Press, 1974.

Selderhuis, Herman J. *Calvin's Theology of the Psalms*. Grand Rapids : Baker Academic, 2007.

번역문헌

데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김동현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 목회자료사, 1999.

W. J. 부스마. 이양호 · 박종숙 공역. 「칼빈」. 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3.

올리비에 아벨(Oliver Abel). "왜 오늘날 깔뱅인가?—깔뱅의 윤리학과 '다른' 근대성의 정신." 한국칼빈학회 2011년 제1차 정례발표회.

요셉 리차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영성」. 서울 : 기독교문화사, 1986.

존 칼빈.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구약성경주석-7」.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0.

_____.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구약성경주석-11」.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0.

_____.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구약성경주석-17」.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0.

_____.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신약성경주석-5」.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0.

_____.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신약성경주석-9」.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0.

_____.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강요 상권」.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8.

_____.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강요 중권」.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8.

_____.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강요 하권」.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8.

_____. 박건택 편역. "스캔들론." 「깔뱅 작품 선집 VI」. 서울 :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_____.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 :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서울 : 크리

스챤다이제스트, 1991.

프랑수아 웬델(François Wendel). 김재성 역.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포드 베틀즈(Ford Lewis Battles). 도날드 매컴 편저. 이종태 역. "칼빈이 보는 참된 경건."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 생명의말씀사, 1991.

필립 샤프(Philip Schaff). 박경수 역. 「교회사 전집-8, 스위스 종교개혁」. 고양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헤르만 셀더르하워스(Herman J. Selderhuis). 장호광 역. 「중심에 계신 하나님 : 칼빈의 시편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9.

_____. 조승희 역. 「칼빈 : A Pilgrim's Life」. 서울 : 대성닷컴(주), 2009.

국내 단행본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_____.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서울 : 도서출판 그리심, 2010.

이양호. 「칼빈의 영성」.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6.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0.

국내 논문

김요셉. 오정호 편집. "칼빈과 칼빈주의 : 고난 당하는 피난민의 신앙고백." 「칼빈과 한국교회」.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9.

문병호. 오정호 편집. "신학자로서의 칼빈." 「칼빈과 한국교회」.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9.

_____. "종보자 그리스도의 종보에 계시된 경건 : 칼빈의 공관복음서 해석에 나타난 위격적 연합 교리를 중심으로." 「칼빈과 영성」. 부산 : 개혁주의학술원, 2010.

_____. "칼빈의 경건신학." 「성경과 신학」 44(2007).

박경수. 한국칼빈학회 편.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 아카데미에 관한 연구." 「칼빈연구」.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박용규. 오정호 편집. "종교개혁자로서의 존 칼빈의 생애." 「칼빈과 한국교회」.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9.

안인섭. 오정호 편집. "인문주의자 칼빈."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 생명의말씀

- 사, 2009.
- 유해룡. “개혁주의 영성.” 「교회교육」, 1994. 3.
- _____. “후기 중세시대의 신경건운동.” 「교회교육」, 1994. 2.
- 윤종한. “칼빈의 영성신학 수립의 가능성과 목적에 대한 소고.” 「칼빈과 개혁신학」. 광주 : 광신대학교출판부, 1999.
- 이수영. 한국칼빈학회. “칼빈의 경건.” 「John Calvin, 그 후 500년」. 서울 :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이은선.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영성 : 관상기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제46권(2009).
- _____. “제네바 아카데미와 개혁파 정통주의.” 「종교개혁과 개혁신학」. 서울 : 성광문화사, 2000.
- 채영삼. “신약의 자기 부인의 영성과 칼빈의 이해.” 「칼빈과 영성」. 부산 : 개혁주의학술원, 2010.

11 교회개혁과 칼뱅의 수사학-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승연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1. 들어가기

16세기 종교개혁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가톨릭 내에서도 다양한 방향의 자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16세기 교회는 그 방법과 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쇄신의 목소리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의 요구는 하나였지만, 기저에 흐르는 동기들이 늘 일치한 것은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개혁의 경우는 개혁가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정치가들의 정치적 야망에 원치 않게 이용되기도 했다. 특히 독일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지방종교회의에서 개혁자들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원치 않는 신학노선과 정치적 입장을 굴욕적으로 취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 출신의 망명가였던 칼뱅은 비교적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유롭고, 분명한 개혁을 지향하는 제네바 시에 발탁됨으로 소신 있는 개혁사상을 펼칠 수 있었다. 물론 제네바 사역 초기에 시의회의 갈등으로 쫓겨나기도